

“지금의 문명은 필연코 공멸에 이를 것이다”

자연재해, 핵무기의 무분별한 사용, 전염병, 자인 고갈, 야만적 자본주의...

미래의 어느 날, 인류는 자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멸망의 그림자는 점점 닥쳐오고 인류는 공포에 휩싸인다. 이때에 위기를 넘어서려는 일군의 과학자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다.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제3 인류 1·2’에 그려지는 모습이다. 2년 만에 새 장편을 펴낸 베르베르의 거침없는 상상력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펼쳐진다.

소설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첫머리에서 제시하는 소설의 시간적 배경 때문인데, 화자는 상대적 시점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 즉 “당신이 이 소설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의 오늘”이 사실상 서사의 시작인 셈이다.

이야기는 샤를 웰즈 박사가 남극 빙하에서 키가 17m에 이르는 거인의 흔적을 탐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거인들은 과거에 고도의 문명을 이룩했던, 현재의 인류를 창조한 이들이다.

샤를 웰즈 탐사대는 남극의 만년빙 아래에서 8000년 전에 소멸한 거인의 유골과 벽화 기록을 발굴한다. 그러나 인류사를 다시 쓰게 될 중대한 발견은 현장의 사고로 파묻히고 만다.

그 즈음, 파리에서는 비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들이 신종 인간을 개발하려는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황폐한 환경과 방사능 속에서 도 생존할 수 있는 신인류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샤를 웰즈의 아들인

생물학자 다비드 웰즈와 내분비학자 오로르 카메라가 있다. 이들은 소형화와 여성화가 진화의 방향이라고 믿는다. 이들이 탄생시키려는 인류는 크기로는 초소형, 성별로는 여성인 인간이다. 두 학자는 콩고의 피그미족이나 터키의 아마존 여전사가 몸집을 줄이고 여성 비율을 늘려 생존 능력을 높였던 데서 근거를 찾았다.

이들은 ‘에마슈’라는 새 인류를 상징한다. 에마슈는 초소형 인간을 지칭하는 ‘Micro-Humans’의 두 문자 M(엘), H(아슈)를 프랑스식으로 읽은 작명이다.

베르베르는 이 에마슈들이 인간의 손에 창조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흥미롭게 풀어간다. 또한 이들의 사회는 어떤 모습을 띠며, 궁극적으로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도 기발한 상상력으로 작조해낸다.

마침내 키 17cm의 초소형 인간(에마슈)이 창조된다. 지금의 인간 평균 키 170cm의 10분의 1인 인류가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다. 사실은 이 에마슈들의 아버지 다비드 웰즈가 베르베르의 대표작 ‘개미’의 중심인물 에드몽 웰즈의 증손자라는 것이다.

올해는 ‘개미’가 출간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에드몽 웰즈의 증손자를 신작의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은 다분히 의도된 전략임을 알 수 있다.

지금껏 베르베르가 지향했던 문장은 ‘다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기’였다. 이 작품에서도 예



‘제3인류 1·2’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외는 아니다. 그는 미성숙한 존재인 인간을 창조주(불완전한 신)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파생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그려낸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에마슈들이 사회에서 벌이는 타락, 범죄 등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인간 사회의 시뮬레이션이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지금의 문명이 나아가는 방식은 필연코 공멸에 이를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에 출간된 작품은 2권 분량의 1부에 해당한다. 현재 2부가 번역 중이다.

〈절린책들·각권 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허위와 부조리... 자신을 에워싼 환경을 둘러보라

‘루신의 말’

루신 지음

‘광인일기’와 ‘이Q정전’의 루신은 중국 현대문학의 선구자이자 세계적인 대문호로 불리는 작가다. 그만큼 그는 중국과 세계의 독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저명한 학자들은 루신을 통해 오늘날의 중국을 사유할 만큼 그는 위대한 사상가이자 혁명가이다.

이번에 발간된 ‘루신의 말’은 인간에 대한 냉철한 통찰력과 실천적 아포리즘이 결합된 책이다. 루신은 1920년대 이후에는 소설보다는 잡문에 치중, 중국인들을 향한 절실한 외침을 전달했다.

‘루신의 말’에는 독자들이 잘 몰랐던 사상가이자 혁명가 루신의 일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루신은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 엄격했고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개혁하고자 했다. 그는 정신과 언어와 행동의 괴리



가 없는 실천적 지성인의 삶을 고집스럽게 추구했다.

또한 세상을啄먹는 불의의 행태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회된 인간이든, 영웅이든 지식인이든, 지배계급이든 피지배계급이든,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예리한 펜을 휘둘렀다. 한마디로 루신의 펜은 ‘웃음’ 뒤에 ‘칼’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칼’은 못 본 척 ‘웃음’에 마비되려는 비겁한 근성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분노와 저항과 변화의 새살을 틈게 하려는 메스였다. 그의 경구는 오늘을 사는 무감각한 현대인들에게 한번쯤 자신을 에워싼 환경을 둘러볼 것을 경고한다.

“노예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찬탄하고, 쓰다듬고, 도취된다면 그야말로 만점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노예이다.” 〈예담·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거대한 대륙이 들려주는 아프리카 역사

‘아프리카 대륙의 일대기’

존 리더 지음

아프리카는 지구상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대륙이자 아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며, 인간을 포함해 무수한 동식물 종이 진화한 생명의 요람과 같은 곳이다.

작가이자 사진기자인 존 리더(John Reader)가 쓴 ‘아프리카 대륙의 일대기’가 번역, 출간됐다.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아프리카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아프리카 평전이다. 특히 그동안 아프리카를 특정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다뤘던 책들과 달리 아프리카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본다.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하고 평전을



쓰듯 써내려간 이 책은 대륙의 탄생 과정과 지리, 기후와 같은 외양을 묘사하고 그 내력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저자는 이러한 자연적 역사를 풀기 위해 지질·지리·고고·기후·역사·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적 토대들을 바탕으로 거대한 대륙이 들려주는 아프리카 역사의 모든 것을 서술한다.

이 책은 아프리카가 다른 세계로부터 오해와 학대를 받아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또 아프리카의 비극이 아프리카만의 것이 아니라 전 지구가 공통으로 처해 있는 운명이라고 강조한다.

〈휴머니스트·5만3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독일에 뿌리내렸던 이주민의 삶

‘유랑, 이후’

최화성 지음

과묵 50돌을 맞아 독일 이주 노동자들의 르포르타주 ‘유랑, 이후’가 출간됐다. 비무장지대, 구도심 등 전국 100여 개의 마을을 스토리텔링 했던 최화성 씨가 펴낸 이 책은 지난 시절 독일에 뿌리내렸던 광부와 간호사들을 주인공으로 한다.

“민들레 흙씨”라 불리는 과묵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는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는 우리 사회가 있고 있던 한 이주자의 한 자락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역사다. 저자는 그들이 떠나야 했던 이유와 정착해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유럽으로 진출한 한인 1세대 이주자의 가치를 부여한다.

극한의 노동을 견뎌야 했던 광부들과 온갖 허드렛일을 했던 간호사들은 한강의 기적을 떠받쳤던 우리들의 선배였다. 저자는 “그들을 찾아 떠나야 유랑은 있고 있었던 가족을 찾는 일이었다”는 말로 의미를 강조한다.

〈실천문학사·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평범한 듯 친근한 일상사

‘애인은 토막 난...’

권혁웅 지음

미당문학상(2012년)을 수상한 권혁웅 시인이 ‘애인은 토막 난 순대처럼 운다’를 펴냈다. 제목부터 예상치 못한 시인의 다섯 번째 작품집은 삶의 현장을 조망하는 명료한 시선과 풍부한 감수성이 정제하게 드러나 있다.

2000년대 젊은 시인들의 시적 경향이 ‘미래파’에 가깝다면 권혁웅의 시는 전통 서정시에 닿아 있다. 시인은 그동안 예민한 통찰력과 세밀한 묘사력을 토대로 일상을 소재로 한 시를 써왔다.



표제작 ‘애인은 토막 난 순대처럼 운다’도 연애라는 친근한 일상사를 감칠맛 나는 언어와 세밀한 묘사로 그려내고 있다. “토막 난 순대”의 형상으로 연애의 후일담을 완성해내는 솜씨가 특유의 감수성과 맞물려 빛을 발한다.

시인은 “내게는 도돌이표 같은 시집이다. 영원히 반복에 처하는 운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말로 시 쓰기의 열망을 드러낸다. 〈창비·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보성녹차, 예술의 도시 비엔나에 상륙하다

‘비엔나 차차차’

백한기 지음

수백 년 전부터 차 문화가 깊숙이 자리잡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든 오스트리아의 중심 비엔나, 이곳에 한국 녹차가 없나...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사로 비엔나에 부임한 백한기는 충격을 받고 직접 한국 녹차를 진출시키러 결심했다. 그의 끈질긴 열정과 실행력 덕분에 마침내 알프스 산맥을 넘어 비엔나의 유서 깊은 차전문점 하스엔하스(Haas&Haas)에 보성녹차가 론칭됐다.

“독심의 외교관” 백한기가 비엔나를 배경으로 한국의 유명한 보성녹차를 상륙시키는 과정에서 있었던 외교활동을 소설처럼 그린 ‘비엔나 차차차’를 펴



냈다. 저자는 개인적인 경험에 그칠 수 있었던 현대자동차 구입 경험의 인연을 보성녹차의 비엔나 진출과 엮고 보성의 대표적 인 ‘판소리’까지 끌어들이면서, 단순히 한국 녹차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까지 알리는 행사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비엔나 차차차’다.

한국 녹차(茶), 한국 자동차(車)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름에서 출발한 이 행사가 어떻게 구상되고 실행됐으며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책을 통해 엿보으로써 앞으로 세계 속 한국 문화의 진출을 돕는 또 하나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울·1만95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신간

▲제6의 물결=제1의 물결인 산업혁명부터 정보통신혁명을 뜻하는 제5의 물결까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엎어 놓은 5개의 강력한 혁신 물결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30년을 지배할 제6의 물결이 어떻게 시장·제도·기술에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를 진단한다. 이미 시작된 제6의 물결의 파고 속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인지 정교한 과학적 분석과 예측을 통해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한국경제신문·1만8000원〉

▲진정일 교수의 교실밖 화학 이야기=지난해 시와 과학, 인문학적 감성과 자연과학적 냉철함의 조합을 담은 ‘진정일 교수, 시에게 과학을 묻다’를 펴냈던 진정일 교수가 2006년에 펴냈던 같은 제목의 책에 기존 내용을 보완하고 최신 화학 정보와 사진자료들을 더해 개정판을 출간했다. 의학학, 물리학, 생명과학, 환경공학, 전자공학, 식품공학 등에 분자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과학으로서의 화학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다. 〈공리·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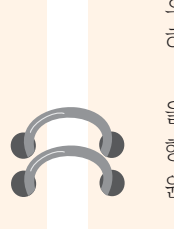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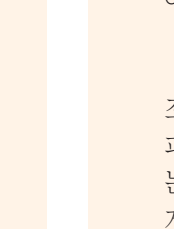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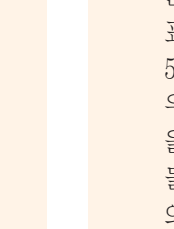
▲오프라 현상으로 원프리를 읽다=가난과 피부의 흑인, 사생아로 태어나 희망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 불행한 삶을 산 여자. 자산 28억 달러의 갑부, 토크쇼의 여왕, ‘타임’지 선정 ‘20세기의 인물’, 화려한 삶을 사는 여자. 이 두 여자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린다.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를 사해·문화적으로 접근해 본다. 〈스마트비즈니스·2만원〉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아는 만큼 더 받는 보험금. 저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겪었던 사례 중에서 보험금 지급 규정이나 약관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서 보험금이 누락되었던 경우 등 조금만 알아두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식을 알려준다. 보험회사나 해당 감독기관도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골리는책·1만8000원〉

▲제로부터의 우주=우주는 왜 텅 비어 있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우주’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다양한 천체들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지난 20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질문이다. 이 같은 질문에 과학이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금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승산·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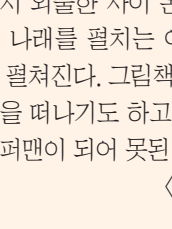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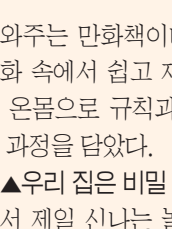
▲데카르트의 사라진 유골=미국의 역사가 러셀 쇼트는 1650년에 죽은 데카르트의 무덤이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뒤 파헤쳐졌고 세 번의 유골이장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그 유골을 빼돌리기 시작했다는 괴기스런 사실을 접한다. 그리고 그 사라진 유골이 역사 속에서 몇 번이고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데 호기심을 갖고 직접 유골을 찾아 나선다. 저자는 진실을 찾는 탐정처럼 데카르트와 그의 유골이 출몰했던 현장을 분석하고 주변 인물들을 탐문해 사건 현장을 재구성했다. 〈옥당·2만2000원〉



▲꿀뚜기=유머가 듬뿍 담긴 문장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가 진형민의 첫 번째 동화집. ‘꿀뚜기’라는 별명으로 불리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유쾌하게 그린 표제작 ‘꿀뚜기’를 비롯해 5학년 3반 아이들이 좌충 우돌하는 이야기 여섯 편을 묶었다. 개성적인 인물들을 통해 그려 낸 아이들의 울려퍼지는 생활 모습이 재미있게 표현됐다. 〈창비·9500원〉

▲용기를 내면 힘이 세져=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중심으로 겁쟁이 피파가 요정 에밀리아를 만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흥미롭고 경쾌하게 그려낸 동화책. 창의적이고, 쉽고, 재미있고, 호기심이 생기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책과 콩나루·1만1000원〉

▲초록 모자 할아버지=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할아버지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담은 동화. 매일 낙성대공원으로 출근하는 초록 모자 할아버지의 일상



을 보게 된 주인공. 할아버지는 매일 사당에서 참배를 하고 공원 청소와 나무를 보살핀다. 주인공은 할아버지로부터 초록 모자 할아버지에 관해 얘기를 듣고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노란돼지·1만원〉

▲파이팅 야구왕=종합 학습만화지 ‘보물섬’에 연재되고 있는 ‘파이팅 야구왕’ 1권이 책으로 나왔다. 초등학생들이 야구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만화책이다. 야구의 규칙과 용어를 만화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었다. 아이들이 온몸으로 규칙과 협동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 〈서울문화사·9800원〉

▲우리 집은 비밀 놀이터=평범한 집이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놀이터로 변신했다.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상상 나라를 펼치는 어린 남매이야기가 재미있게 펼쳐진다. 그림책 속 주인공과 함께 멋진 모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을 지키는 슈퍼맨이 되어 멋진 악당을 무찌르기도 한다. 〈푸른숲주니어·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